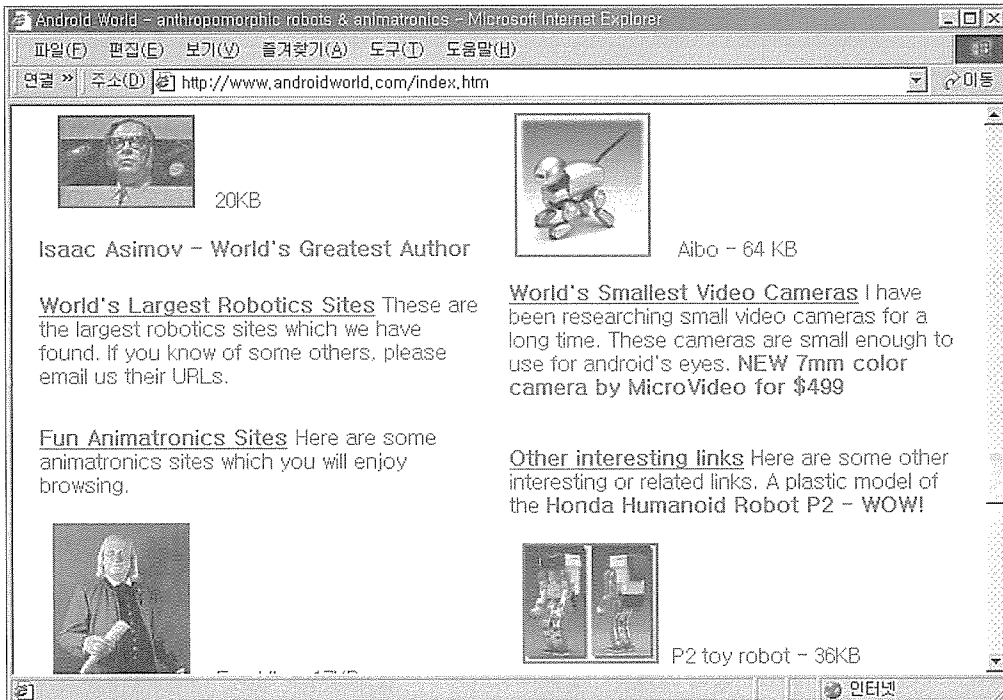


안드로이드 월드 (www.androidworld.com)



지난해 11월 일본 혼다회사는 사람처럼 두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 아시모(Asimo)를 선보였다. 현재 이 로봇은 일종의 장난감으로 제작됐지만 곧 간단한 가사를 도울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출 것이라 한다. 휴머노이드(humanoid), 안드로이드(android)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휴먼로봇이라 불리는 인간형 로봇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인간의 일을 대신해줄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

안드로이드 월드에는 바로 이러한 인간형 로봇을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다.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개한 로봇과 연구소들은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다.

기본적인 구성은 주제별로 인간형 로봇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해당 웹사이트를 링크해주는 형식이다. 보통 특정 주제를 다루는 웹사이트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에 집중하면서 관련 사이트 링크는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안드로이드 월드에는 아예 전 세계 인간형 로봇 관련 사이트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을 제

공해줄 수 있다.

제공하는 내용으로는 세계 각국의 인간형 로봇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세계 최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인간형 로봇의 발달사를 보여주면서 해당 기업과 연구소를 소개한 '역사적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오락용 로봇을 소개한 '엔터테인먼트 안드로이드', 가사용 로봇개발 현황을 알 수 있는 '가사 안드로이드', 인간형 로봇의 핵심 관건인 두발 보행에 대한 연구 현황을 소개한 '두발 보행 프로

젝트' 등이 있다. 또 '비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각국의 인간형 로봇 개발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월드에는 또한 인간형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자 하는 아마추어들을 위해 로봇 부품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촉각 센서 보드'나 '안드로이드 시각 정보', '안드로이드 머리 프로젝트', '세계 최소형 안드로이드용 비디오 카메라' 등은 세계적인 개발 현황과 함께 각 부품의 가격, 조립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월드에는 99년 미국의 '혁신 기술박물관'(www.thetech.org)과 '락 힐 프레스'(www.rockhillpress.com), 그리고 영국의 'BLTC 리서치 재단'(www.house-sparrow.com)이 선정한 우수 사이트였으며, 지난해에는 영국 '더 넷 매거진'(www.thenetnow.co.uk) 8월호 선정 세계 최고 로봇 사이트에, 독일 '글로벌 메타가이드'(www.alba36.com)의 최고 인터넷 사이트에 뽑히기도 했다.



미스터리 월드 (www.mysteryworld)



세계 역사를 개괄한 '타임머신', 세계의 문화와 풍물을 소개한 '세계를 간다'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1가지 기사를 새로 올리고 있다.

또 과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들의 칼럼도 눈여겨볼만한 내용들이다. TV의 각종 오락프로그램에 나오는 심령술 등과 같은 이른바 의사과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는 강건일박사가 칼럼니스트로 참여한 것도 이 사이트의 진지함을 증명해주는 일이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초자연현상이나 공포물이 큰 인기라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소위 '엽기'나 'X파일'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잘못된 지식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크다.

미스터리 월드도 이름만 들어선 그런 사이트의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스터리 월드는 이름과 달리 미스터리물이나 공포물을 다루는 사이트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미스터리한 미지의 세계를 익혀 지식의 영역을 점차 넓혀 나아간다는 뜻을 가진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현대과학으로 보는 한국의 유산' '현대과학으로 보는 세계의 미스터리'란 책으로 유명한 이종호박사가 책임을 맡고 있다.

지식 전문 토털 사이트를 지향하는 미스터리 월드의 최대 장점은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콘텐츠인 '지식의 세계' 코너엔 '과학의 세계', '피라미드' 등 미스터리를 분석한 '호기심 천국',

그렇다고 백과사전식 설명이 나열된 재미없는 사이트는 아니다. 동영상 코너엔 인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피라미드에 대한 소개가 있다. 앞으로 메소포타미아 등 고대 문명을 중심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프랑스 최고의 예술품 전문가인 페르난드 갈리아노(Fernand Galliano)가 엄선한 그림과 고대 유물 등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온라인 박물관은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사이트를 볼거리 많은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그 중 명화의 원본과 위작본을 비교하면서 틀린 곳을 찾도록 한 게임은 사용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①

李永完 (동아 사이언스 기자)